



전 세계 2억 대 이상 판매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갤럭시S' 시리즈의 다섯 번째 모델이 공개됐다.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이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례행사에서 갤럭시S5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스페인) | AP뉴시스

“갤럭시S5, 강력한 한방 없다”

외신·소비자 반응 '냉랭'

예상치 크게 벗어나지 못한 사양
지문인식·심박센서 등 기능 추가

“변화는 있었지만 감탄사가 튀어나올 만한 혁신은 없었다.”

배일을 벗은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에 대한 포브스 등 외신과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정말 그럴까. '갤럭시S5'의 실체는 무엇일까.

삼성전자는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컨벤션센터에서 연례행사를 열고, '갤럭시S5'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전 세계에서 2억대 이상 팔린 플래그십(주력 상품) '갤럭시S' 시리즈의 다섯 번째 모델로 공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그만큼 많은 루

머도 양산했다. 공개된 제품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5.1인치 풀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2.5GHz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달았다. 후면 카메라는 1600만 화소이며, 배터리는 2800mAh다. 지문 스캐너를 탑재해 잠금 화면 해지는 물론 모바일 결제 서비스도 지원한다. 생활 방수·방진 기능도 갖췄다.

스마트폰 최초로 심박센서를 탑재해 강화된 생활 건강 기능을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실시간 심박수 체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동해 실시간 피트니스 코칭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삼성 기어2' 2종에 이어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 핏'도 공개했다.

모습을 드러낸 '갤럭시S5'에 대한 외신 반응은 '기분에 충실한 변화는 있었지만 혁신이 없어 아쉽다'였다. '패스트 오토 포커스' 등

■ 갤럭시S5 제품 사양

●크기: 142.0×72.5×8.1mm ●무게: 145g ●AP: 2.5 GHz 쿼드코어·2.1 GHz 옥타코어 ●디스플레이: 5.1형 Full HD Super AMOLED(1920×1080) ●카메라: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210만 화소 전면 카메라 ●배터리: 2800 mAh

진화한 카메라 성능, 심박센서를 통한 건강관리 등 전체적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지만, 지문인식 등 새롭게 도입된 기술은 이미 앞서 출시된 다른 경쟁 제품에도 적용된 바 있고 기대했던 홍채인식이나 QHD 디스플레이 등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들 유혹할 '강력한 한방'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한편, '갤럭시S5'와 '삼성 기어 핏'은 4월부터 150개국 이상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 @kimyke76

유통시장 급변…갤럭시S5 흥행 '산 넘어 산'

상반기 이동통신사 영업 정지 후폭풍
'단통법' 통과 땀 하반기 소비 위축 우려

기대를 모으는 신제품이 쏟아지면서 2014년 스마트폰 시장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시작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최근 '갤럭시S5'와 'G프로2' 등 전략 신제품을 잇달아 공개 또는 출시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조사들은 이를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신제품 라인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시장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상반기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장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최단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2.11 보조금 대란' 등으로 기존과는 다른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2개 사업자씩 묶어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과 신규가입 뿐 아니라 기기변경까지 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품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기간과 제품 출시가 맞물리는 제품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강력한 제재 이후 얼어붙은 시장 탓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제품의 기대감이 출시된 뒤 수

개월 안에 빠르게 줄어드는 스마트폰 시장의 특성상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과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대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등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 보조금 뿐 아니라 제조사의 장려금까지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반기에나 시행돼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이 시행된다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는 스마트폰 유통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결국 내수 시장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명근 기자

맛·건강 다 잡은 '그린 라이트 푸드' 대세

푸른 채소로 입맛 돋우고 칼로리 걱정 뚫
피자헛 '샐러드 피자' 젊은층 여성에 인기

최근 봄을 앞둔 외식업계에서는 그린 라이트(Green Light) 푸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린 라이트 푸드는 샐러드나 녹차의 푸른 색감으로 산뜻하게 입맛을 돋우고, 칼로리를 낮춰 부담 없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말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 라이트 푸드로 봄맞이 심신을 가꾸려는 소비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피자헛 '샐러드 피자'

봄이라면 신선한 샐러드를 놓칠 수 없다. 한국 피자헛의 패스트&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피자헛 키친에서는 신선한 샐러드와 담백한 치즈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샐러드 피자로 여심을 사로잡고 있다. 그린 라이트 푸드를 대표하는 샐러드 피자는 고소하고 풍미 가득한 바질 페스토 소스 도우 위에 신선한 루콜라 샐러드와 치즈를 푸짐하게 얹어 식감을 자극한다. 특히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치즈인 리코타, 페타, 모짜렐라 중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계절밥상, 봄 신메뉴 출시

CJ푸드빌의 계절밥상은 봄을 알리는 제철 재료인 민들레, 세발나물, 봄동 등으로 만든 신메뉴 14종을 출시했다. 민들레로 만든 면, 민들레 잎과 국화 꽃잎을 넣은 '민들레 국수무침', 민들레로 은은하게 우려낸 '민들레차'는 입안 가득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메뉴다. 계절밥상의 봄 메뉴는 25일 출시됐다.

●BHC '프리미엄 텐더 요레요레'

BHC는 신선한 샐러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치킨 메뉴인 '프리미엄 텐더 요레요레'를 선보였다. 닭의 황금부위 속 안심살을 사용해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고, 바삭한 감자칩과 신



선한 샐러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상큼한 요거트와 풋풋한 사과 맛의 '애플요거트 소스'를 함께 제공해 신선함을 더한다.

●아웃백 '고르곤졸라 월넛 치킨 샐러드'

칼로리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맛과 영양은 살린 라이트 메뉴도 봄을 맞은 여성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이탈리아 전통 치즈로 맛은 살리고 부담은 줄인 '고르곤졸라 월넛 치킨 샐러드'를 출시했다. 치즈와 함께 호두, 크랜베리, 토마토가 포진한 샐러드 메뉴로 선보여 다이어트식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과 영양을 고려했다. 달콤하면서도 맵고 강한 맛의 고르곤졸라 치즈 맛과 샐러드의 조합이 다채로운 맛을 낸다.

●BBQ '올리브치킨 통가슴살 탕수육'

BBQ에서는 탕수육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올리브치킨 통가슴살 탕수육'을 출시했다. 지방 함유량이 적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닭가슴살을 통째로 사용해 칼로리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부드럽고 촉촉한 맛 때문에 웰빙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 한편 대상㈜ 청정원은 칼로리가 낮고 트랜스지방이 전혀 없어 야식으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뷰티칼로리엔 프레스' 온탕면을 새롭게 출시했다. 곤약면을 사용해 칼로리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행남자기 '데일리 가든 밀폐찬기세트' 출시

공기·수분 차단 밀폐 뚜껑…결합력 UP

생활자기의 명가 행남자기(대표 김유석)가 봄기운을 담은 '데일리 가든 밀폐찬기세트(사진)'를 출시한다.

지난해 홈세트로 인기를 끌었던 데일리 가든의 야생화 패턴을 적용한 밀폐찬기세트다. 야생화의 소박함과 화사한 색감에 도자기 소재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움을 더 해주는 제품이기도 하다. 수채화로 표현한 분홍비늘, 아마, 달맞이꽃 등 청초하고 아기자기한 야생화와 푸른 잎사귀의 만남이 시각적인 편안함과 화화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투명한 밀폐 뚜껑으로 도자기 본체와의 결합력을 높였다. 외부 공기,



수분과의 접촉을 차단해 음식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삼차림 시 밀폐 뚜껑만 제거하면 음식을 따로 찬기에 덜어 낼 필요없이 그대로 식탁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백화점과 행남자기 온라인 공식 쇼핑몰인 행남몰(www.haengnammall.co.kr)에서 구입 가능하다. 가격은 4개(8pcs) 세트 6만4000원.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밀레, 발이 편한 워킹화 '아치스텝' 출시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대표 한철호)가 발의 아치를 유연하게 해 피로누적을 줄인 워킹화 '아치스텝'(Arch Step·사진) 시리즈(18만8000~19만8000원)를 출시했다. 걸을 때 발바닥 중앙부의 움푹하게 들어간 발 아치가 유연하게 상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발에 가해지는 피로로 줄인 제품이다. 발의 아치는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발에 무리한 힘이 실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걸을 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고 뒤틀리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아치 프로테터를 뒤쪽에 삽입해 안정성을 한 번 더 강화했다. 고어텍스와 에어 메쉬를 전면 사용해 방수 및 투습, 통기성이 우수하다. 신발 산업진흥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신발이기도 하다.

K2, 대학생 '오렌지 재능기부단' 모집

아웃도어 브랜드 K2(대표 정영훈)가 대학생 '오렌지 재능기부단'을 모집한다. 오렌지 재능기부단은 K2의 임직원 봉사단의 이름이기도 하다. 봉사의 보람을 두꺼운 오렌지 겹질 속의 달콤한 과실에 착안해 지었다. 대상은 서울 소재의 대학생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다. 3월 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www.scc.seoul.kr)을 통해 접수한다. 선발된 대학생 오렌지 재능기부단원들은 5회에 걸쳐 청소년 소통 캠프 '스쿨핑'의 지도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청소년에게 아웃도어 활동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또래간의 부족한 소통을 채워주는 소통 도우미 역할도 할 예정이다.

앱스아시아 '라인 프리코인' 해외마케팅 대행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케팅을 하는 국내 업체가 모바일 대신 '라인'의 광고 플랫폼을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한다. 앱스아시아는 라인 주식회사가 서비스하는 광고 플랫폼 '라인 프리코인'의 해외 마케팅 대행 업무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리코인은 라인 사용자가 앱을 내려받고 실행하면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는 코인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앱스아시아는 향후 일본과 대만,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프리코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팬택 또 워크아웃 신청…기회 잡을까?

삼성·애플 실적현상에 6분기 연속 적자

스마트폰 제조기업 팬택이 또다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불과 2년여 만이다.

팬택은 25일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중장기 생존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팬택의 워크아웃 추진은 국내의 시장 환경과 맞물려 있다. 현재 스마트

폰 시장은 단말기의 기술혁신 퇴조로 상품 중심에서 마케팅에 무게를 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실적현상이 계속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팬택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도 2011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지난해까지 6분기 연속적자를 내며 재무적 안정성이 취약해진 상황이다. 팬택으로선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팬택은 이번 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생존과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외부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팬택은 지난 2007년 유동성 위기를 맞아 기업구조조정법이 실효된 상황에서 국내기업 역사상 최초로 99.9% 이상의 채권단 동의를 얻어 자발적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07년 3분기부터 2011년 4분기까지 누적매출 10조1777억원, 누적 영업이익 7130억원의 18분기 연속영업흑자를 달성하며 2011년 말 성공적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한 바 있다.

김명근 기자

편집 | 김매진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